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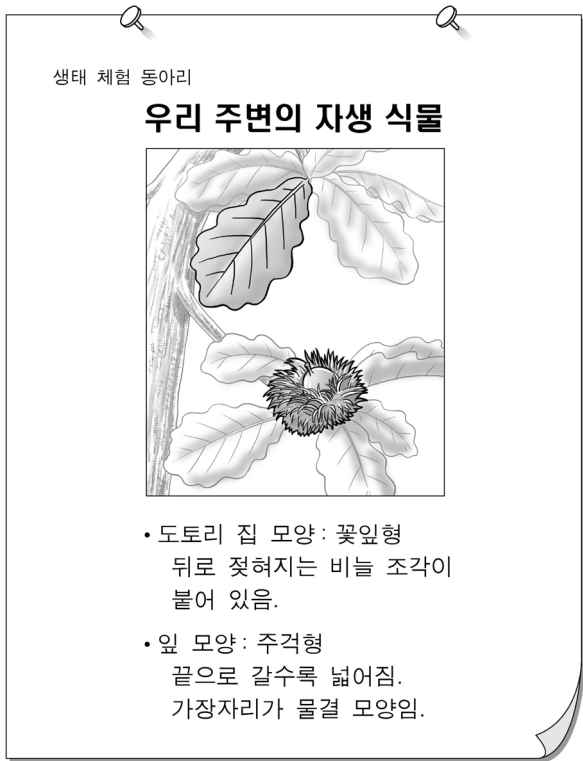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 ②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 ③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갖춰야 한다.
- ④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물음) 발표를 위해 만든 그림판 초안이다. 대화에서 언급한
수정·보완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발표할 내용에 맞게 제목을 수정한다.
- ②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 ③ 다른 참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 그림을 삽입한다.
- ④ 그림 아래에 있는 정보의 순서를 조정한다.
- ⑤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린다.

3. (물음) 뉴스를 듣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칩 위의 약국’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군.
- ② 컴퓨터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게 되었군.
- ③ 장기간에 걸쳐 적정량의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투약 효과가 높아지겠군.
- ④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약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겠군.
- ⑤ 약물의 조절이 필요할 때 몸 밖에서 신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더 편리해지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인터뷰를 들으며 메모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 조사

- 조사 필요성: 세계화·다문화 시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필요 ----- ①
- 조사 결과: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 부족 ----- ②
- 타인과의 관계 유지·관리 능력(관계 지향성) ----- 낮음 ----- ③
- 타인과의 협력 능력(사회적 협력) ----- 낮음 ----- ③
-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갈등 관리) ----- 높음 ----- ④
- 결과 해석: 실천력은 뛰어나지만, 공동체 의식은 부족 ----- ⑤

5. (물음) 인터뷰 내용에 대한 여학생의 반응을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천적 관점에서 조사 목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②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 ③ 중립적 자세로 내용을 비판하며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다.
- ④ 공감적 태도를 보이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⑤ 조사 결과는 수용하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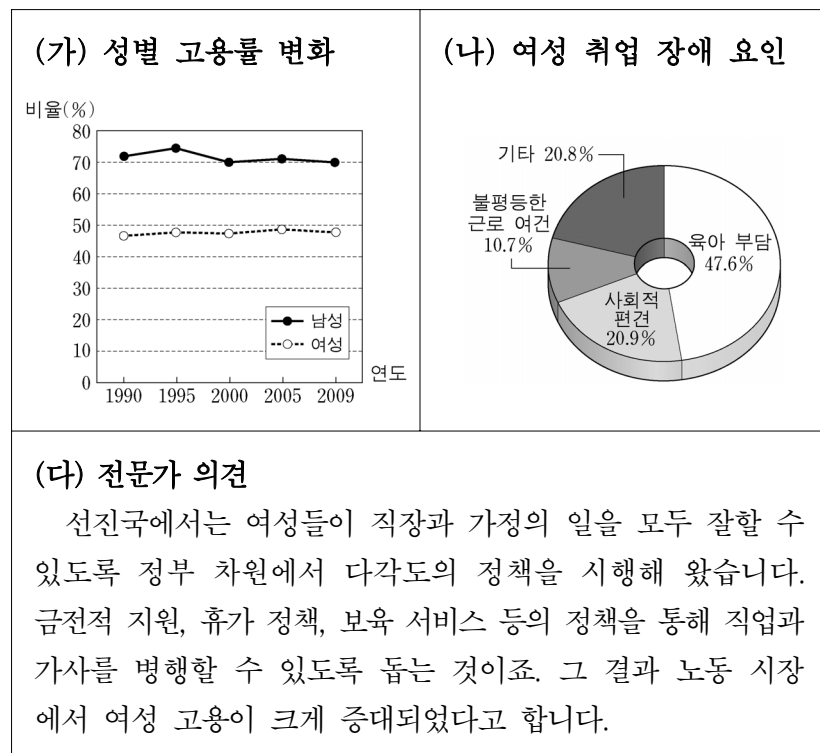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성공적인 토론 대회 준비'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인터뷰에 착안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Q.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위력적인 전진 속공이 강점인 ○○○ 선수와 팀을 이룬 것이겠지요. 견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유도하는 저와는 찰떡궁합이었던 셈입니다.
 Q. 그렇군요.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요.
 A. 까다로운 강팀들의 경기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습 경기 파트너로 △△ 팀을 선택했는데요, 작전을 검증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최적의 상대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출전을 앞두고는 감독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습 경기에서 나타났던 취약점을 집중 보완했습니다.

- ① 서로의 장점이 만나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친구와 팀을 꾸린다.
 ② 상대 팀이 약체로 판단되어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전력을 분석한다.
 ③ 상대 팀의 예상 논거를 분석하여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
 ④ 모의 토론을 통해 토론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전 대응력을 키운다.
 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모의 토론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에 주력한다.

7. '여성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활용하여, 최근 20년간 여성 고용률과 남성 고용률의 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② (나)를 활용하여,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을 가정, 사회, 직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③ (다)를 활용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성별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I. 서론

1. 청소년기 문화·예술 체험의 중요성
 2. 청소년기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

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

1. 방과 후 활동의 참여도㉡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만족도

I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문제점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식 부족㉢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부족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부담 과중

IV.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2. 교과 내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V. 결론

- ① ㉠: 논지 전개상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② ㉡: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로 수정한다.
 ③ ㉢: IV-1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확대'로 대체한다.
 ④ ㉣: III-3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⑤ ㉤: 주제와 III을 고려하여 '학생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한다.

[9~10] 다음은 사진전을 관람한 후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사진전에 다녀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진전에 다녀왔다. 그 곳에서는 ‘빛 공해’의 실태를 보여 주고 적절한 조명을 권장하는 취지에 ㉡ 걸맞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빛 공해’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동식물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말한다.

㉢ 어두워야 할 밤에 지나친 조명을 받으면 인체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생체 리듬이 깨지며, 식물의 생장에도 장애가 된다고 한다.

나는 여러 작품 중 특히 도시의 건물 사이에 넘쳐 나는 조명을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무심코 켜 놓은 불빛들이 모여 도시를 끓게 하고 있었다니㉣…….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빛 공해’를 주제로 한 표어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전에서 받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나도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어를 ㉤ 제기 하고 돌아왔다.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전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은 ‘빛 공해 사진전에 다녀와서’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어문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은 ‘걸맞은’으로 바꿔야겠어.
 - ③ 문단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앞 문장과 연결하여 한 문단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어.
 - ④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사진작가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로 생략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좋겠어.
 - ⑤ 문맥에 적합하도록 ㉤은 ‘제출하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10. <보기>는 ‘표어 대회’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작성한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도시를 뜨겁게 달구는 조명의 불빛
하늘을 슬프게 해매는 새들의 눈빛
- ② 무심코 불을 켜면 한숨 쉬는 나무들
당신이 불을 끄면 미소 짓는 나무들
- ③ 거리의 환한 조명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
당신의 손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 줍니다
- ④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의 아름다운 향연
화려한 조명들이 선물하는 사진 속의 예술
- ⑤ 별빛마저 삼켜 버린 솔잎같이 따가운 불빛
아아 그림구나! 감감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

11.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동일한 ‘체언 +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12.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보 기>

밤중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잘못 디디지)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가늘게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겹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안에서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친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원형으로 젓고)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뉘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뚫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낮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 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건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앓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변뇌와도 같은 것이군.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뚱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뚱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② '부뚱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③ '부뚱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④ '부뚱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⑤ '부뚱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에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㉔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㉕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 폴리비오스, 『세계사』 —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군.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21. ㉕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멍들다 ② 빗내다 ③ 힘쓰다
④ 그늘지다 ⑤ 남다르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로는 파스칼(Pa, 1 MPa=10⁶ 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 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 -3 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 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

해야 하는 데 있다.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 용질: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공의 개폐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②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③ 기공이 열리면 식물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④ 증산 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물기둥에 장력이 발생한다.
⑤ 물의 응집력으로 인해 물관부 내의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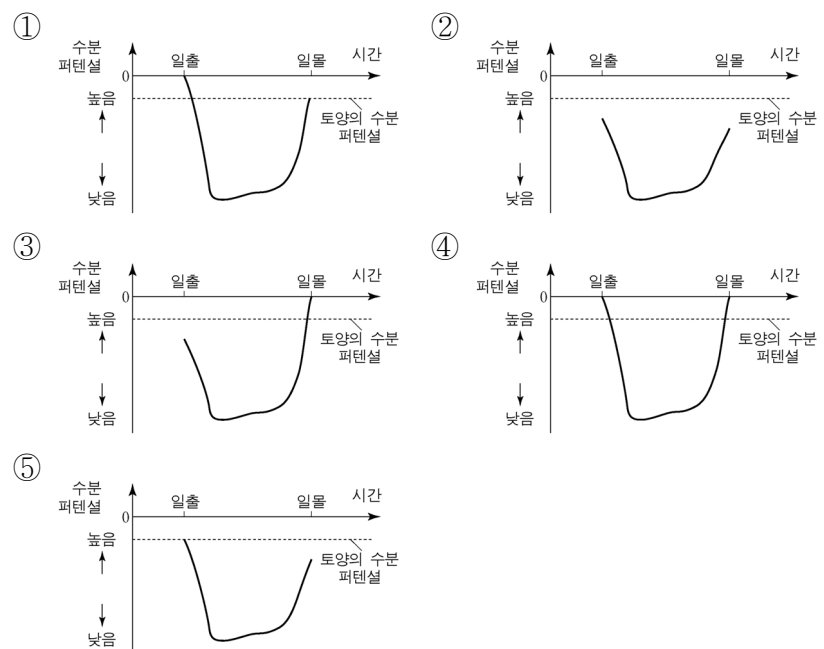
24. ㉠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한다.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한다.
㉢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잎의 수분 퍼텐셜이 대기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5.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잎’의 수분 퍼텐셜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갯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찌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맨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턱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신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꼬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물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건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콕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들을 긁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끌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밑천을 뽑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씌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 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

2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 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 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④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 들고 있다.

28. ㉠과 ㉡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 ②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 ③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④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⑤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쉘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 광고의 경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 프레임 안에 상품을 위치시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다음으로,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져 구속, 소외, 고립 따위를 환기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 조성(造成)되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작중 인물을 문이나 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을 암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 같은 인물의 내면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영화는 작중 인물의 현실 이야기와 그의 상상에 따른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온다.

그런데 현대에 이룰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가령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상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 사례도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작가의 의도는 현실을 화면에 담는 촬영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 ②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
- ③ 이차 프레임의 시각적 효과는 심리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④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는 일체감이 형성된다.
- ⑤ 이차 프레임은 액자형 서사 구조의 영화에서 이야기 전환을 알리는 데 쓰이기도 한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1950년대 어느 도시의 거리를 담은 이 사진은 ㉠자동차의 열린 뒷문의 창이 우연히 한 인물을 테두리 지어 작품의 묘미를 더하는데, 이는 이중 프레이밍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① ㉠로 인해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는군.
- ② ㉠가 없다면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강조되었군.
- ③ ㉠로 인해 창 테두리 외부의 풍경에 시선이 유도되는군.
- ④ ㉠ 안의 인물은 멀리 있어서 ㉠가 없더라도 작품 내 존재감이 비슷하겠군.
- ⑤ ㉠가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뀌더라도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겠군.

32.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한 그림에서 화면 안의 직사각형 틀이 인물을 가두고 있는데, 팔과 다리는 틀을 빠져나와 있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 ②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문이나 창은 항상 닫혀 있는데, 이는 주인공의 폐쇄적인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③ 한 그림에서 문이라는 이차 프레임을 이용해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 뒤, 정작 그 안은 실체가 불분명한 물체의 이미지로 처리하여 관객에게 혼란을 준다.
- ④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앞집의 반쯤 열린 창틈으로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목격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틈이 한 가정의 행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⑤ 한 영화는 자동차 여행 장면들에서 이차 프레임인 차창을 안개로 줄곧 뿌옇게 보이게 하여, 외부 풍경을 보여 주며 환경과 인간의 교감을 묘사하는 로드 무비의 관습을 비튼다.

33.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 |
|-------------|-------------|
| ① 결성(結成)되기도 | ② 구성(構成)되기도 |
| ③ 변성(變成)되기도 | ④ 숙성(熟成)되기도 |
| ⑤ 형성(形成)되기도 | |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버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용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베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뒤통이 짙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떨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왓,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왓,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게 왓,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이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왓,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향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향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왓,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지라.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훈(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 나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봉명 사진: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진.

* 선참후계: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5.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곰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 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 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에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 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됩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 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오.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선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쭉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 인터셉트: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고 당사자 대신 다른 인물들을 통해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영상을 통해 구경꾼들의 태도를 드러내어 사건의 심각성과 대비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39.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홍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비서관은 현장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의식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군.
- ⑤ 주치의는 기자 회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간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다.

- ① ㉠에는 ㉠뿐만 아니라 ㉡를 확산하는 주인공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 ② ㉡에는 주인공이 ㉠를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를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룰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룰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 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41. 위 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42.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한 상무: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 고모님 뵙는 게 몇 년 만인가? ㉢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어, 저기 ㉣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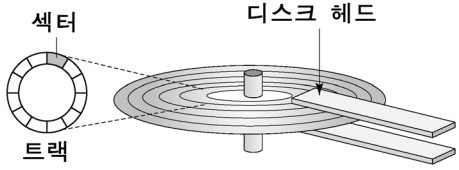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밑줄 친 단어들이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 하며, 이때 헤드는 '54 → 99 → 35 → 123 → 15 → 66'과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면 '54 → 66 → 35 → 15 → 99 → 123'의 순서가 되므로,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 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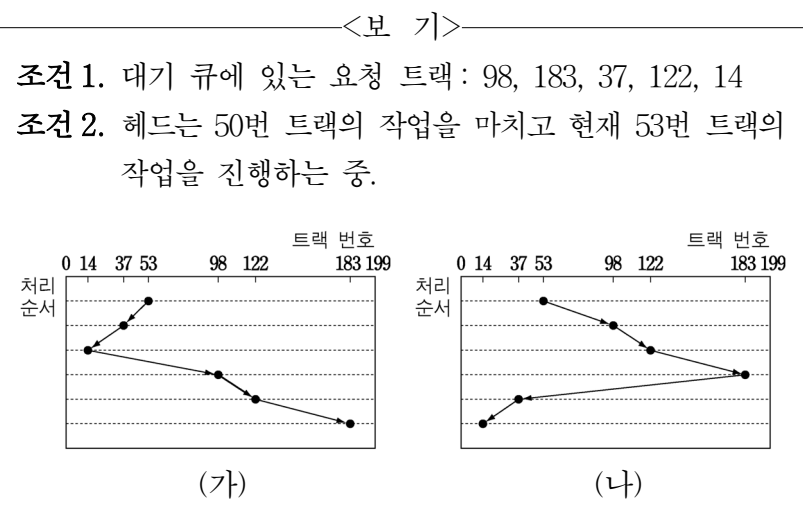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 → 35 → 15 → 0 → 66 → 99 → 123'의 순서로 처리되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개선한 LOOK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다.

* 대기 큐: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된다.
- ②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난다.
- ③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한다.
- ④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45. <보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에서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스케줄링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 | (가) | (나) |
|---|------|------|
| ① | FCFS | SSTF |
| ② | SSTF | SCAN |
| ③ | SSTF | LOOK |
| ④ | SCAN | LOOK |
| ⑤ | LOOK | SCAN |

46. 헤드의 위치가 트랙 0번이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3점]

- ①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SSTF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작다.
-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다르다.
-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 ⑤ 요청된 트랙 번호들에 끝 트랙이 포함되면, LOOK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48. <보기>의 상황에 ㉠, ㉡을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을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5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